

박태웅 의장(1963년생)의 다양한 활동 전체 정리 (2026년 2월 기준, 위키·공식 프로필·강연 기록·뉴스 종합)

1. 학력·초기 경력 (언론·벤처 창업기)

-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경북고 졸업.
- 한겨레신문 기자 (경제부·전략기획팀) → **한겨례21 창간 주도**, 씨네21 창간 기여.
- 1999년: 국내 최초 허브사이트 **인티즌** 창업 (언론인 출신 벤처 1세대 화제).
- 이후: 나모인터넷브 부사장, 안철수연구소 경영지원실장, 웹보안 회사 자무스 대표, 검색포털 **엠파스** 부사장.

2. 교육·통신·미디어 경영 경력

- 열린사이버대학교 부총장.
- **KTH(케이티하이텔)** 부사장 (2009~2013, 컨버전스 사업 총괄).
- 푸드테크 부사장 (2016~2018).
-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 (2018~현재, IT 전문 출판사 대표 주도).

3. 현재 주요 직함·공식 역할

- **녹서포럼 의장** (2010년대 후반~현재): 사회가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을 정의하고 공론화하는 토론플랫폼. EU 'Green Book(녹서)' 모델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녹서 프로젝트** 추진 (2025년 본격 시동). “질문하고 문제를 정의합시다”가 핵심 슬로건.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AX 분과장** (현재): 공공 부문 AI 전환(AX) 정책 총괄. AI 네이티브 정부 설계, 데이터 FAIR 원칙 등 주도.
- **민주연구원 모두의질문Q 대표**.
-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2025.3~).
- **4·16재단 후원회 공동대표** ('기억의 수호자' 캠페인): 세월호 참사 기억 보존·피해 청소년 지원 활동. 친구 박래군 권유로 참여하며 “기억하지 않으면 비극이 반복된다”고 강조.

4. 수상

- **2021년 동탑산업훈장**: 정보통신 분야 발전 공로.

5. 저서 (대표작 중심)

- 『눈 떠보니 선진국』(2021) — 한국이 ‘어느 날 갑자기 선진국’이 된 현상을 분석.
- 『박태웅의 AI 강의』(2023) → **『박태웅의 AI 강의 2025』** (2024.9 개정증보판, 현재 베스트셀러).

6. 강연·미디어 활동 ('IT 현자' 'AI 현자' 별명)

-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다수 출연 (대표: 2061회 ‘이미 시작된 주니어 소멸... 10년 뒤 우리 사회에 벌어질 끔찍한 일’).
- **영리더스포럼 제주(2025)**: 기조강연 ‘AI 시대의 도전에 응전하는 법’.
- 제주미래포럼(2026), 오픈소스 페스티벌 기조강연(2025), 각종 기업·공공 포럼.
- 유튜브·방송 인터뷰: 김어준 뉴스공장, MBC 뉴스하이킥, 알릴레오 블스, 삼프로TV 등 다수 (AI 미래·일자리·교육 주제).
- 기업 강연 스타강사: 챗GPT 이해, AI 시대 교육, 스타트업 생존 전략 등.

7. 온라인·사회 활동

- **Facebook** (@bagtaeung.561890): 정보 큐레이션 전문 계정 (팔로워 3만+). 매일 수십 건의 IT·사회·AI 관련 포스팅 (전체 공개).

- 브런치·블로그 칼럼: AI 트렌드, 사회 비평 연재.
- AI 리터러시·인문학 복권 운동: 강연과 책을 통해 “질문하는 능력 + 교양” 강조.

8. 정책·사회공헌 키워드

- AI 주권(소버린 AI)·맨해튼 프로젝트 제안.
- 공공 부문 AI 네이티브 전환 촉구.
- AI 시대 기본사회·사회안전망 주장.
- 세월호 기억 보존·청년 지원.
- 한국형 녹서(공론) 운동으로 사회 문제 사전 토론 문화 확산.

박태웅 의장은 **한겨레 기자 → 벤처 창업가 → 교육·통신 경영자 → 출판사 의장**이라는 독특한 커리어를 바탕으로, **AI 시대의 ‘현자’**이자 공론장 리더, 정책 자문가, 사회운동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언론·IT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을 사회·인문학적으로 해석하는데 탁월하며, 2025~2026년에도 국가 AI 전략·공공 AX·녹서 프로젝트·세바시 등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추가로 특정 분야(예: 녹서포럼 구체 사례, 최근 강연 영상 링크 등)가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박태웅 의장의 『박태웅의 AI 강의 2025』(2024.9.30 한빛비즈 출간, 기존 『박태웅의 AI 강의』 개정증보판)은 챗GPT 이후 급변하는 AI 현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AI 리터러시’ 교과서입니다. 총 6강으로 구성되며, 기술 원리(LLM 작동 방식, 규모의 법칙, 할루시네이션 등)를 쉽게 설명하면서도 사회·윤리·정책적 함의까지 다룹니다. 핵심은 “AI는 단순 도구가 아니라 삶과 일의 **운영체제(OS)**가 된다”는 관점으로, 2025년 현재 진행 중인 변화를 6대 트렌드로 압축해 제시합니다.

AI 6대 트렌드 (1강 ‘AI의 진화’에서 상세 제시)

1. **운영체제로서의 AI (AI as OS)**

AI가 PC의 윈도우·맥OS처럼 모든 소프트웨어·서비스의 기반 계층(Layer)이 된다. 앞으로 거의 모든 SW가 AI와 연동되는 형태로 진화하며, 2025년 말에는 AI 연동 SW가 비연동 SW보다 많아질 전망. AI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AI 네이티브’ 앱·서비스가 표준이 된다.

2. **맥락 인터페이스 (Contextual Interface)**

기존 GUI(폴더·키워드 검색·분류) 시대가 끝나고, AI가 **맥락을 이해**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등장. 정보를 검색하거나 분류할 필요 없이 자연스러운 대화·화면 공유·음성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예: “지난주에 논의했던 그 프로젝트 자료 보여줘”라고 하면 AI가 전체 대화·파일·일정 맥락을 파악해 바로 제시. 멀티모달(텍스트+이미지+음성)과 결합되면 인터페이스가 인간 감각과 거의 동일해지는 수준까지 발전한다. 박 의장은 “검색의 종말”이라고 표현하며, 이는 AI가 인간의 생각 흐름을 따라가는 혁명적 변화라고 강조한다.

3. 파트너로서의 AI (모든 작업의 필수 동반자)

4. 멀티모달 (텍스트·이미지·영상·음성 동시 처리, 향후 옴니모달)
5. 더 저렴하게·더 빠르게·더 작게 (스마트폰급 소형 모델·개인 에이전트 보편화)
6.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몸을 가진 AI, Embodied AI·전이 학습 핵심)

책은 2~3강에서 LLM·생성형 AI의 능력과 한계(똑똑하면서도 멍청함, 다른 형태의 지능), 4~5강에서 윤리·위험·규제, 6강에서 한국 대응 전략까지 이어집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지 않으려면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수라고 역설합니다.

박태웅 의장은 세바시(특히 2061회 ‘이미 시작된 주니어 소멸’)와 각종 강연에서 AI 시대 교육을 ‘주입식 교육의 완전한 종말’로 진단합니다.
AI는 인터넷보다 7배 빠른 속도로 지식을 제공하고, 암기·정답 찾기 능력은 무의미해집니다. 따라서 교육 목표는 **“정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질문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이유**: AI는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병렬 계산하지만, **맥락·의도·가치 판단**은 인간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자신의 의견이 담긴, 깊이 있는 질문)이 없으면 AI의 출력물을 제대로 활용하거나 비판할 수 없고, 오히려 AI에 ‘사고를 빼앗기는’ 상황이 됩니다. 교육은 뇌의 뉴런 연결망을 풍부하게 만드는 연습(토론·생각의 연결고리 만들기)이 핵심이며, AI를 ‘조교·튜터’로 활용하되 인간 고유의 사고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는 “인간은 최고 질문 책임자(Chief Question Officer)가 되어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 **인문학의 역할**: 풍부한 교양(인문·예술·과학·역사 등)이 없으면 좋은 질문을 만들 수 없습니다. AI 시대에 인문학은 **비판적 사고·윤리적 판단·자기 의견 형성**의 기반이 됩니다. “풍부한 교양을 갖고 있지 않으면 훌륭한 질문을 할 수 없다”며, 주입식·암기 중심 교육을 폐기하고 교양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AI가 답을 주더라도 인간이 그 답을 이해·재해석·새로운 의제를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사회를 지배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박태웅 의장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AX 분과장으로 활동하며 정부에 강력한 정책 제안을 해왔습니다.

AI 맨해튼 프로젝트

- **개념**: 2차 세계대전 미국의 핵 개발 프로젝트(맨해튼 프로젝트)를 모델로 한 국가 총력전. 전 세계 한국계 AI 개발자(오픈AI·구글·메타 등 해외 석학 포함)를 모두 모아 **소버린 AI(자주적 파운데이션 모델)**를 개발하는 국가 프로젝트.
- **이유**: AI는 전기·증기기관 같은 범용기술로 모든 산업의 근간. 외국 모델에 의존하면 공급 차단 시 산업·국방이 마비될 수 있음(우크라이나 전쟁 사례). 규모의 법칙(컴퓨팅 파워+데이터+매개변수) 때문에 민간 기업 단독으로는 미국·중국 빅테크를 따라갈 수 없음.
- **세부 내용**: 정부가 급여·연구비 전액 지원, 경직 허용, 국책 연구소 설립(상근+단기 참여). 오픈웨이트(가중치 공개)로 협업 유도, 인클루시브 AI(후발 국가 포함·다국어 데이터 확보)로 외교 주도권 확보. 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포용적·신뢰할 수 있는 AI.

GPU 인프라 국가 지원 정책

“GPU는 AI 입장료”라고 단언하며 정부가 대량 구매(최소 10만 장, 이상적으로 20만 장)해 연구자·기업에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현재 한국은 A100 기준 2만 장 미만으로 부족하며, NPU(국내 AI 반도체)는 학습용으로는 한계(소프트웨어 스택·엔지니어 부족)가 있어 GPU 우선 확보를 강조.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도 2030년까지 5만 장 목표를 세웠으나, 박 의장은 더 과감한 투자를 요구합니다.

공직 사회 AI 태도에 대한 비판과 제안

- **비판**: 공직 사회는 여전히 “당나라 과거제도 + 순환 보직”으로 전문성이 전무. AI를 ‘도구’로만 보고, 100% 외주 개발로 소스 코드를 아는 공무원이 없으며, 로그조차 없는 낙후된 시스템. 고위직은 “기름 바른 장어”처럼 보인다고 직설 비판.
- **제안**: 단순 활용이 아닌 **‘AI 네이티브 정부’**로 전환. 모든 프로세스를 AI 기반으로 재설계하고, 데이터 생성 시 **FAIR 원칙**(*Findable, Accessible, Interoperable, Reusable*) + 기계 판독 가능(*Machine-readable*) 형태를 의무화. “오늘의 일이 내일의 데이터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 정부가 스스로 똑똑해지게 해야 함. 공무원은 AI 리터러시를 갖추고 AI를 ‘혁신 파트너’로 인식하는 문화 혁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박태웅 의장의 일관된 메시지는 “AI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지만, 인간이 질문하고 주도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과 강연 모두 실천적 대응을 촉구하는 강한 경종으로 읽힙니다. 더 구체적인 챕터나 강연 영상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박태웅 의장(녹서포럼 의장,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은 AI·기술·사회 미래를 주제로 유튜브에 다수 출연했습니다. 주로 **세바시(Sebasi Talk)**, **김어준 관련 채널**(*뉴스공장·겸손은힘들다·다스뵈이다*), **알릴레오 북스**, **선대인TV**,**삼프로TV**,**떠먹여주는TV**,**MBC 뉴스하이킥** 등에서 인터뷰·강연·토크쇼 형식으로 등장합니다. 2025~2026년 들어 AI 일자리·교육·국가 전략 주제가 집중됐어요.

아래는 주요 유튜브 출연 영상들을 시기·채널별로 정리한 목록입니다 (2026년 2월 기준, 조회수 높은 순·최근 순 위주). 대부분 풀영상 공개되어 있으며, 내용 요약도 함께 붙였습니다.

대표 강연·인터뷰 (고전급·조회수 상위)

1. **세바시 2061회: 이미 시작된 주니어 소멸... 10년 뒤 우리 사회에 벌어질 끔찍한 일**
 - 채널: 세바시 강연 *Sebasi Talk*
 - 업로드: 2025년 말 (2025.12경)
 - 길이: 약 15분 (세바시 표준)
 - 링크 예시: <https://www.youtube.com/watch?v=o1xy66z46e4>
 - 내용 요약: AI가 인터넷보다 7배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청년·주니어 일자리가 먼저 소멸 중. 주입식 교육 종말, “훌륭한 질문” 능력 강조, 교양(인문학)의 복권 필요성, AI가 “축복으로 위장된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경고. 가장 많이 공유·추천되는 그의 대표 강연.
2. **인공지능 혁명, 이 영상 하나로 끝낸다. 박태웅의장 풀인터뷰!**
 - 채널: 선대인TV
 - 길이: 약 1시간 30분 (합본)
 - 내용 요약: 『박태웅의 AI 강의 2025』 기반 풀 인터뷰. AI 6대 트렌드(운영체제로서의 AI, 맥락 인터페이스 등), AGI 도래 시기, 한국 AI 경쟁력 부족 이유, 소버린 AI·맨해튼 프로젝트 필요성. “AI는 도구가 아니라 OS”라는 그의 핵심 철학 총정리. 많은 사람이 “AI 입문용 최고 영상”으로 꼽음.
3. **(1부) AI와 로봇 합쳐지면 미국만 살아남을 겁니다** + 후속 인터뷰들
 - 채널: 떠먹여주는TV (통합본 다수)
 - 내용 요약: 피지컬 AI(*휴머노이드 로봇*) 시대 한국 생존 전략, 엔비디아·삼성·현대차 역할, 미국·중국 독주 속 한국의 뒤풀침. AI 특이점(5년 내 가능성) 논의도 포함.

2025~2026년 최근 출연 (신규·정치·시사 중심)

4. **AI가 인류를 뛰어넘기 직전이다. AGI, AI 종교, 소버린 AI, 인류 생존**

- 채널: 월말 김어준 (또는 김어준 관련 채널)
- 업로드: 2026년 1월
- 내용 요약: AGI 임박 시기, AI가 종교처럼 송배될 위험, 한국 소버린 AI 절실함. 한상기 교수와 대담.

5. **[뉴스하이킥] 2026년 한국 AI의 경쟁력은?**

- 채널: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 방송: 2026.1.1
- 내용 요약: 2026년 AI 트렌드 전망, 한국 GPU 인프라·인재 부족 비판, 국가 프로젝트 제안.

6. **천연지능 vs 인공지능, 미국과 중국이 우리에게 AI를 빌려줄까? [박태웅의 AI 강의 2025] 1부 + 2부**

- 채널: 알릴레오 북's (알릴레오 북스)
- 업로드: 2025년 7월 (풀버전 포함)
- 내용 요약: 책 기반 토크. AI 의존 위험, 소버린 AI 필요, 20대 일자리부터 소멸 시작, 인간 역할 재정의 (질문·윤리 판단).

7. **취미는 과학 24화 확장판: AI 특이점, 5년 안에 온다고?**

- 채널: 취미는 과학 (데프콘 등 출연)
- 업로드: 2025년 3월
- 내용 요약: 데프콘·항성 등과 AI 특이점·할루시네이션·휴머노이드 토크. 박태웅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

기타 주목 영상 (짧은 클립·특강 포함)

-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6년 1~2월 다수 출연): AI 정책·공공AX·교육 혁명 주제.
- 삼프로TV: 실제 AI 1년 앞서 있다 인터뷰 (2024~2025).
- 벙커1 특강: 『박태웅의 AI 강의』 출간 기념 1·2부 (딴지방송국).
- 권순표의 물음표: “AI 현자” 박태웅에게 AI와 인류 미래 물음 (MBC).

박태웅 의장은 유튜브에서 “AI 현자”로 불릴 만큼 일관되게 **“AI는 피할 수 없는 OS, 인간은 질문·교양으로 주도해야”**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세바시 영상이 가장 접근성 좋고, 풀 인터뷰(선대인TV·알릴레오)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추천해요.

특정 영상 하나를 더 자세히 요약하거나, 최근 2026년 2월 출연 클립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링크는 직접 검색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소버린 AI 한국 전략 (2026년 2월 16일 기준, 최신 정부·전문가 자료 종합)

1. 소버린 AI(Sovereign AI)란?

국가가 **AI 모델·데이터·인프라·인력·규범**을 자국이 직접 통제·운영할 수 있는 체계. 단순 ‘국산 AI’가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 확보가 핵심입니다.

- 해외 빅테크(미국 OpenAI·Google, 중국 DeepSeek 등)에 의존하면 데이터 유출·공급 차단·가치관 왜곡 위험이 발생 → 국가 안보·경제·문화 주권 문제.
- 한국형 정의: “인프라·플랫폼형 소버린 AI 중견국 모델” (삼성SDS·INSS 보고서).

미국·중국처럼 풀스택 완전 독자 구축이 아닌, **반도체·데이터센터·K-LLM·제조 AI**를 결합해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실용적 접근.

2. 한국 정부의 공식 비전과 전략 프레임워크

비전: 미국·중국에 이은 **AI 3대 강국**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 문서:

-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2026.2.10 국무회의 보고) → 99개 실행 과제 + 326개 정책 권고.

3대 축:

- ① AI혁신 생태계 조성
- ②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AX)
- ③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 **AI 기본법** (2026.1.22 전면 시행): 세계 최초로 산업진흥·규제·거버넌스를 하나로 묶은 포괄법.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통령 직속,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컨트롤타워. 2025.9 출범 후 AI 기본의료·기본사회·공익데이터 거버넌스 등 속도감 있게 추진 중.

중견국형 특징 (INSS 2025.11 보고서)

- 고비용 풀스택 대신 **특화형 풀스택**: 한국 강점(반도체·HBM·제조업) 집중 + 미중·중견국 협력.
- 목표: 전략적 자율성 + 글로벌 공급망 레버리지 + 지속가능성(에너지·E-waste) 리더십.

3. 구체적 실행 로드맵 (2025~2030)

①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K-LLM / 독파모)

- 2025년 5개 정예팀 선정: 네이버클라우드·업스테이지·SK텔레콤·NC AI·LG AI연구원.
- 2026년 1~2개 국가대표 모델 최종 선정 예정 (From Scratch 목표, 500B 파라미터급).
- 용도: 한국어·문화·산업(제조·의료·금융) 특화 + 공공·국방 적용.

② 컴퓨팅 인프라 (GPU가 AI 입장료)

- 2025년: 1만 장 GPU 확보.
- 2027년: 국가 AI 컴퓨팅 센터 가동 (10조 원 투자 규모).
- 2030년: 수십만 장 GPU + 다수 NPU 기반 AI 데이터센터 (민관 합동).
- 엔비디아와 26만 장 우선 공급 약속 (2025 APEC 계기).
- 전력·냉각·부지 문제 해결 위해 규제 완화·재생에너지 연계 추진.

③ 산업·공공 적용

- 제조 AI (Physical AI): AI 팩토리·로봇·자동차·반도체 등 7대 선도 프로젝트.
- 공공 AX: AI 통합민원플랫폼, 복지 자동 제공, 국방 AI 획득체계 단축.
- 전 국민 AI 바우처 사업 확대.

④ 국제 협력

- 2026.2 UAE와 'AI·디지털 미래 동맹' (소버린 AI·스마트 항만·투자 사절단 상호 방문).
- 인클루시브 AI: 후발 국가와 오픈웨이트 공유·공동 GPU 팜 추진.

투자 규모: 초기 100조 원 (일부 보고서 150조 원 확대) + 민간 투자 유치.

4. 박태웅 의장(녹서포럼·한빛미디어)의 제안과 영향

박 의장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AX 분과장 시절부터 가장 강력하게 소버린 AI를 주장한 인물입니다.

핵심 제안 (2025년 7월 바이라인네트워크 인터뷰 등):

- **AI 맨해튼 프로젝트**: 2차대전 미국 핵 개발 프로젝트처럼 **전 세계 한국계 AI 석학·개발자 총집결**. 정부가 급여·연구비 전액 지원, 겸직 허용, 국책 연구소 설립.

- **GPU 10만 장 이상 즉시 확보** ("AI 입장료").

- 결과물은 정부 소유 → 국내 기업 무료 이용 + 성공 시 이용료 회수.

- **인클루시브 AI**: 소버린 AI를 넘어 아시아·아프리카 후발 국가와 협력 (다국어 데이터·ODA 연계).

그의 주장은 “외국 AI에 의존하면 산업·국방 마비”라는 강한 경고로 공론을 형성했으며, 정부의 GPU 대량 확보·국가 프로젝트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공식 전략은 그의 ‘총력전’보다는 **실용적 중견국 하이브리드 모델** (자강+협력)을 채택했습니다.

5. 현재 평가·과제·전망 (2026년 2월)

강점: 반도체 공급망 세계 최상위, 제조업 적용 사례 풍부, AI 기본법 선제 시행, 중견국 외교력.

과제:

- 전력·인재 부족 (GW급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 난관).

- 기업 vs 공공·국방 간 데이터·모델 공유 체계 미흡.

- 미중 기술 통제 리스크.

2026년 전망: “실행의 해”. K-LLM 가시화, 국가 AI 컴퓨팅센터 착수, AI 기본의료·기본사회 본격 추진. 성공하면 한국은 “인프라 강국 + 플랫폼 중견국”으로서 미국·중국과 다른 제3의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박태웅 의장 스타일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AI는 이제 운영체제(OS)다. 외국 OS에 의존하는 나라는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한국은 반도체·인재·외교라는 카드를 제대로 써서 ‘우리 OS’를 만들어야 산다.”

더 구체적인 부분(예: K-LLM 개발 사례 현황, 인공지능 행동 계획 99개 과제 상세, UAE 협력 세부 내용 등)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박태웅 『눈 떠보니 선진국』(2021년 8월 한빛비즈 출간)은 GDP 세계 9위(당시 기준)로 올라선 한국이 **이미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었지만,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한 사회적·문화적·제도적 조건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진단한 책입니다. 제목처럼 “Already but not yet(이미 됐지만 아직 아니다)”라는 딜레마를 중심으로, 후발주격형 성장의 한계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책은 총 **3부 구성**으로, 머리말 + 본문 + 결론 형식입니다. (총 228쪽 정도로 비교적 얇고 명쾌하게 읽힘)

머리말: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이 된 것일까?

- 코로나 팬데믹 속 BTS 빌보드 1위, 봉준호 아카데미 수상, OECD 최고 성장을 등 ‘국뽕’ 사례를 나열하면서도 “경제 규모만으로는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단언.

- 선진국이란 ***“앞보다 뒤에 훨씬 많은 나라가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정의(definition)’를 내리는 사회**라는 핵심 정의 제시.
- 후발주격국 한국은 늘 “어떻게(How)” 따라잡을지만 고민했지 “무엇을(What), 왜(Why)” 해야 하는지 묻는 습관이 부족했다는 문제 제기.

제1부: 선진국의 조건?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되어 있었다

이 부분이 책의 핵심으로, 저자가 제시하는 **진정한 선진국의 4대 조건**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를 비판·진단합니다.

1. **문제를 정의하는 사회 (Definition-making society)**

- 선진국은 베낄 선례가 줄어들 때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답을 만들어간다.
- 한국은 여전히 “외부에서 정답이 내려오길” 기다리는 문화 → 예: 원격의료 논쟁에서 “왜 해야 하는가” 대신 “어떻게 규제할까”만 논의.

2. **데이터 기반의 사회 (Data-driven society)**

- 모든 정책·의사결정이 데이터로 뒷받침되어야 함.
- 한국은 데이터가 있어도 FAIR 원칙(찾기 쉽고, 접근 가능하고, 상호운용 가능하고, 재사용 가능)이 미흡 → 공공 데이터 활용 부족.

3.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 (Thick middle class)**

- 소득·자산 양극화 해소가 선진국의 기본.
- 한국은 상하청 갑을 구조, 비정규직 비율, 부동산 쓸림으로 중산층 붕괴 중 → 진정한 민주주의 기반 약화.

4. **협상하는 사회 (Negotiating society)**

-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타협·협상하는 문화가 봄에 배어야 함.
- 한국은 “제로섬 게임”식 대립(노사, 세대, 지역 등) → 학교에서 노동법·협상 교육 부재가 근본 원인.

제2부: 고장 난 한국 사회 (주요 사회 문제 진단)

- **고장 난 인센티브 시스템**: 성과주의가 아니라 “줄 세우기”·“학벌·스펙” 중심 → 창의성·혁신 억제.
- **신뢰 자본의 부족**: 서로 불신하는 사회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저하.
- **입시 외 지식의 빈곤**: 학교 교육이 암기·정답 중심 → “왜”를 묻는 질문 능력 상실.
- **토론·논쟁 문화 부재**: 의견 차이를 “싸움”으로 보는 풍토 → 건강한 공론장 미형성.

제3부: AI의 시대,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 2021년 당시 이미 AI·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예견하며 한국의 대응 전략 제시 (이후 그의 AI 강의 시리즈와 연결됨).
- **AI는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운영체제(OS)** → 한국이 따라가기만 해서는 안 됨.
- **교육 혁명**: 주입식 → 질문·교양 중심으로 전환. 인문학 복권 강조 (훌륭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AI 시대 승자).
- **기본사회·사회안전망 강화**: AI로 인한 일자리 소멸 대비 → 중산층 유지 필수.
- **소버린 AI 필요성** 초기 언급: 국가 주도 AI 개발·인프라 투자 촉구 (맨해튼 프로젝트 아이디어의 썩).

전체 메시지 요약 (저자 핵심 문장 인용 중심)

-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다.”

- “해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
- “후발주격의 미덕은 끝났다. 이제는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
- “AI 시대에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교양 있고 질문 잘하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이 책은 2021년 출간이지만, 2026년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AI·교육·양극화 문제에서 박태웅 의장의 일관된 진단이 드러나죠. (후속작 『박태웅의 AI 강의』 시리즈가 이 책의 연장선상입니다.)

특정 챕터 하나를 더 깊게 파고들거나, 책 속 명언·인용구 모음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박태웅 『눈 떠보니 선진국』 제1부 “선진국의 조건?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되어 있었다”는 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저자가 제시하는 **진정한 선진국의 4대 조건**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를 날카롭게 진단합니다. (책 목차상으로는 “눈을 떠 보니 선진국이 되어 있었다”, “신뢰자본을 제대로 쓸 때다”, “참된 선진국의 조건, 뉴런의 자유결합”, “셰익스피어가 필요한 때”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4대 조건으로 압축됩니다.)

이 4대 조건은 경제 규모(GDP 세계 9위)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문화·제도적 성숙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각 조건을 챕터 흐름에 따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페이지수는 대략적 참고, 2021년 초판 기준).

1. 문제를 정의하는 사회 (Definition-making society) – “눈을 떠 보니 선진국이 되어 있었다” 챕터 중심

- **핵심 정의**: 선진국이란 **“앞보다 뒤에 훨씬 많은 나라가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정의(definition)’를 내리는 사회**다.
베낄 선례가 줄어들 때, “무엇을(What), 왜(Why)”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묻고 답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 **한국의 문제**: 한국은 세계 최고의 **후발주격국(fast follower)**이었다. 전쟁 폐허에서 미친 속도로 따라잡았지만, 늘 “어떻게(How)” 따라갈지만 고민했다. 정답은 항상 “밖에서 주어지는” 형태였다.
- **예시**: 원격의료 논쟁 → “왜 해야 하는가(의료 접근성·효율성)” 대신 “어떻게 규제할까”만 논의.
코로나 방역 성공도 “선진국 모델 따라하기”的 연장선.
- **필요한 변화**: 질문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답 찾기”가 아닌 “문제 정의하기”가 선진국의 시작. 해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

2. 신뢰 자본을 제대로 쓰는 사회 (Trust capital society) – “신뢰자본을 제대로 쓸 때다” 챕터

- **핵심**: 선진국과 후진국·중진국의 결정적 차이는 **‘신뢰 자본(trust capital)’**의 양과 질이다. 신뢰가 높을수록 거래 비용이 낮아지고, 사회 전체 효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 **한국의 현실**: 서로 불신하는 사회 → 무임승차자에 대한 관대함 + 발각 시 과도한 처벌의 양극단.
예: 지하철 무임승차 → “거의 대부분 편하게” vs “발각 시 엄벌” → 신뢰 자본 축적 실패.
- **비교**: 선진국은 “대부분 신뢰”를 기본으로 하며, 소수 무임승차자만 엄격히 단속 → 신뢰가 자본처럼 쌓인다.

- **제안**: 신뢰를 자원으로 보는 관점 전환. 공공 부문부터 FAIR 데이터 원칙 적용, 투명성 강화로 신뢰 쌓기.

3. 뉴런의 자유결합이 가능한 사회 (Free combination of neurons) – “참된 선진국의 조건, 뉴런의 자유결합” + “세익스피어가 필요한 때” 챕터

- **핵심**: 인간 뇌의 뉴런처럼, **사람·아이디어·지식이 자유롭게 결합**되어 새로운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다.

암기·정답 중심 교육이 아닌, **교양·인문학·예술**이 풍부해야 뉴런(생각)이 자유롭게 연결된다.

- **한국의 문제**: 입시 외 지식 빙곤 → 학교가 “정답 찾기”만 가르침. 세익스피어·고전 읽기 부족 → 깊이 있는 사고·공감·비판력 미흡.

- **왜 중요한가?**: AI 시대에 들어서면 단순 지식은 AI가 대신하지만, **새로운 연결·창의적 재해석**은 인간만 가능. 교양이 없으면 좋은 질문을 못 던진다.

- **제안**: 인문학 복권. “세익스피어가 필요한 때” → 예술·문학이 뇌의 연결망을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

4. 협상하고 타협하는 사회 (Negotiating society) – 전체 제1부에서 암시·강조되는 조건 (중산층 두터움과 연계)

-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제로섬이 아닌 원원 협상**을 자연스럽게 하는 문화. 중산층이 두터워야 가능하다.

- **한국의 문제**: 노사·세대·지역 갈등이 “싸움”으로 치닫는다. 학교에서 협상·토론 교육 거의 없음.

- **연계**: 중산층 봉고(상하청 갑을, 부동산 쓸림, 비정규직) → 협상 여력이 없어 대립 심화.

- **필요한 변화**: 교육부터 “협상하는 시민” 키우기. 타협이 미덕인 사회로 전환.

제1부 전체 메시지 요약

- 한국은 **Already(이미 경제 선진국)**지만 **not yet(아직 진정한 선진국 아님)**.

- 4대 조건(정의·신뢰·뉴런 자유결합·협상)을 갖추지 않으면 공중누각 같은 상태.

- 저자는 “후발추격의 미덕은 끝났다. 이제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질문·교양·신뢰·타협을 강조합니다. 이는 이후 그의 AI 강의 시리즈(질문 능력·인문학 역할)와 직결되는 기반입니다.

이 4대 조건은 책 전체의 뼈대이자, 2026년 현재에도 여전히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입니다. 더 구체적인 인용구나 예시(예: 무임승차 사례 세부)가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박태웅 『눈 떠보니 선진국』 중 “신뢰자본을 제대로 쓸 때다” 챕터(제1부 핵심 부분, pp.32~43 정도)는 한국 사회가 이미 경제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신뢰 자본(trust capital)’**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 챕터는 책 전체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비유와 사례를 통해 “신뢰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경제·사회 성장의 핵심 자본”임을 강조합니다.

챕터 주요 인용구와 분석 (책 직접 인용 중심 + 온라인 발췌·요약 기반)

1. **핵심 인용 1** (pp.32~33)

> “한 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바로 ‘신뢰 자본’이다. 선진국과 중진국을 가르는 결정적인 ‘절대반지’. 거의 대부분의 승객들을 아주 편하게 하는 대신에,

발각된 무임승차자에게는 엄벌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 반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이게 우리 사회에 쓰인 신뢰 자본을 제대로 활용하는 길이다. 신뢰 자본을 제대로 쓰는 사회가 선진국이다.”

- **분석**:

가장 유명한 비유 –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시스템**을 통해 설명. 선진국(예: 유럽·일본 일부)에서는 검표원이 거의 없고 개찰구가 열려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표를 산다”는 신뢰가 기본 전제. 발각 시 엄벌로 신뢰를 유지 → 검표 비용 절감 → 사회 전체 효율↑.

반면 한국은 “무임승차자에 관대하지만, 발각 시 과도한 사회적 비난·처벌” → 신뢰가 쓰이지 않고 거래 비용(감시·검사·분쟁)이 폭증.

→ 신뢰 자본 = **“대부분 신뢰 + 소수 엄벌”**의 균형. 이게 깨지면 경제 성장도 제약받는다 (김병현 교수 인용: 신뢰 10% ↑ → GDP 0.8% ↑, 일자리 5만 개 추가 효과).

2. **핵심 인용 2** (챕터 후반부, 사회적 비용 측면)

> “신뢰 기반이 없는 나라는 사회적 비용 증가로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하고 만다.”

- **분석**:

신뢰 부족 → 모든 거래에 “계약서·감시·벌칙” 필요 → 시간·돈·에너지 낭비.

예: 한국 기업의 상하청 갑을 관계, 과도한 서류·감사 문화, 서로 불신하는 노사 관계 등.

선진국은 신뢰 자본이 두터워 “계약서 한 장 없이도” 거래가 성사 → 혁신·창의성 폭발. 한국은 이 자본을 “제대로 쓰지 못해” 공중누각 같은 성장 구조.

3. **추가 인용·연계 표현** (챕터 전체 흐름에서)

-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않고 신뢰하면 경제도 성장한다.” (인터뷰·칼럼 확장 버전)
- “신뢰 자본을 제대로 쓰기만 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편해지고 경제도 성장을 하거든요.” (TBS 인터뷰 등에서 강조)

- **분석**:

신뢰는 **비용 절감 도구**이자 **성장 엔진**.

한국 사회의 문제: “화이트칼라·엘리트 범죄에 관대” vs “서민 무임승차에 과민” → 신뢰의 불균형.

저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않는” 문화 전환을 촉구. 공공 부문부터 투명성·데이터 공개로 신뢰 쌓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 (후속 AI 강의에서 FAIR 원칙·공공 AX로 이어짐).

챕터 전체 메시지 요약

- 신뢰 자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본**이지만, 쓰이면 GDP·일자리·삶의 질이 자동 상승.
- 한국은 “이미 선진국 경제 규모”지만, 신뢰 자본 부족으로 **중진국 함정** 탈출 실패 위험.
- 해결책: “대부분 신뢰 + 예외 엄벌” 모델 채택 → 교육·법·문화에서부터 신뢰를 자원으로 보는 관점 전환.

이 챕터는 박태웅 의장의 글 중 가장 직설적이고 설득력 있는 부분으로, 출간 후 많은 리뷰·강연에서 “신뢰 자본” 키워드가 화제가 됐습니다. (예: 무임승차 비유는 지금도 자주 인용됨)

더 구체적인 페이지 인용이나 다른 챕터 연계 분석(예: 신뢰와 AI 시대 연결)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박태웅 의장이 바라보는 ‘신뢰(신뢰 자본)’와 AI 시대의 연결 분석 (2021년 『눈 떠보니 선진국』부터 2026년 1월 칼럼·공공AX 강연까지 일관된 관점)

박태웅 의장은 **신뢰를 “선진국만 쓸 수 있는 레어 아이템, 가장 귀한 자본”**으로 규정하며, 이는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더 강력하고 실천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2021년 책에서 사회적 효율의 핵심으로 제시한 개념이, AI 시대에는 **제도 혁신·데이터 공유·AI 윤리·공공 AX의 전제 조건**으로 진화합니다.

1. 책(2021) 신뢰자본의 본질 → AI 시대 필수 인프라

- **책 핵심 인용** (제1부 “신뢰자본을 제대로 쓸 때다”):

> “한 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바로 ‘신뢰 자본’이다. ... 거의 대부분의 승객들을 아주 편하게 하는 대신에, 발각된 무임승차자에게는 엄벌을 함으로써 ... 신뢰 자본을 제대로 쓰는 사회가 선진국이다.”

- **AI 시대 연결**:

AI는 **데이터·협업·공유**가 생명입니다. 할루시네이션·편향·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 사람들이 AI를 “신뢰할 수 없으면” 사용하지 않거나 과도한 규제로 막아버립니다.

신뢰자본이 없으면 → 데이터 사일로(기관 간 공유 거부), 과잉 규제, 채택 저항 → AI 발전 자체가 멈춘다.

반대로 신뢰자본이 쌓이면 → “대부분 신뢰 + 소수 엄벌” 모델로 AI 데이터 FAIR 원칙(찾기 쉽고, 접근 가능하고, 상호운용 가능하고, 재사용 가능)이 자연스럽게 작동.

2. 2026년 1월 경향신문 칼럼: AI 시대 제도와의 ‘불화’ 해결책 = 신뢰 자본

- **직접 인용** (2026.1.18 [박태웅의 디지털] “시대와 불화하는 제도들”):

> “불신의 구조를 버려야 한다. 가장 귀한 자본은 언제나 신뢰이다. 중진국과 선진국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 선진국만 쓸 수 있는 레어 아이템 신뢰 자본을 쓸 줄 알아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바꿔를 당한다.”

- **분석**:

챗GPT 출시 후 2개월 만에 1억 사용자 시대인데, 한국 조달체계·교육과정은 여전히 **3~6년 지연** 구조(중앙집권·불신 기반).

AI 시대는 “기술의 변화가 갈수록 속도를 더한다”(기술 위에 기술이 올라타는 구조).

→ 불신 구조(엄격한 사전 심사·중앙 통제)는 자율성과 창발(emergence)을 막는다.

→ 신뢰자본으로 전환해야 AI가 증기기관처럼 사회 전체를 재편할 수 있다(길드·루이 16세 실패 사례 인용).

3. AI 윤리 원칙에서 ‘신뢰성(Trustworthiness)’을 핵심으로

박태웅은 『박태웅의 AI 강의』 시리즈와 여러 강연에서 **‘사람을 위한 AI’를 위한 6대 윤리 원칙**을 제시합니다:

- 투명성 · 포용성 · 책임성 · 공정성 · **신뢰성**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신뢰성 강조**:

“인공지능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일관되고 의도한 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 할루시네이션 등 확률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사용자가 AI를 비판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리터러시 + 시스템적 신뢰성(설명 가능 AI)이 필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AI 산업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4. 공공AX(공공 부문 AI 전환)에서 ‘국민 신뢰’가 출발점

- 2025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강 등 공공AX 분과장 활동에서 반복 강조:
 > “공단은 민감한 보건의료데이터를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 **연결점**:

AI 시대 공공행정은 방대한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지만, 국민이 “내 데이터를 믿고
맡길 수 있나?” 하는 신뢰가 없으면 AX 자체가 실패.

→ 보안·프라이버시 → 국민 신뢰 → 데이터 혁신 → AI 네이티브 정부.

이는 소버린 AI, AI 맨해튼 프로젝트에서도 동일: 국가가 주도하려면 국민·기업의 신뢰가
전제.

종합: 박태웅이 말하는 ‘AI 시대 신뢰 자본’의 3가지 의미

1. **사회·제도적 신뢰**: 불신 기반 관료제를 버리고 자율·창발을 허용 → AI 속도에 맞춘
빠른 혁신.
2. **기술적 신뢰**: AI 자체의 신뢰성(일관성·설명 가능성) + 인간의 AI 리터러시 → 인간이
AI를 ‘도구’가 아닌 ‘파트너’로 신뢰.
3. **국민·데이터 신뢰**: 보안·프라이버시로 쓸은 신뢰 → AI 시대 최대 자원인 데이터를
자유롭게 순환.

박태웅 의장의 일관된 메시지:

**“AI는 이미 운영체제(OS)가 되었다. OS를 제대로 쓰려면 신뢰 자본이 있어야 한다. 신뢰가
없으면 AI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

2021년 책에서 시작된 ‘신뢰자본’ 개념이 2026년 현재 AI 시대의 가장 실천적인 처방전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바로 그가 강조하는 “이미 선진국이지만 아직
선진국이 아닌” 한국이 진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열쇠입니다.

더 구체적인 칼럼全文이나 특정 강연 영상 속 인용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